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 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한 눈에 보는 펀드 현황 (2020.07.23. 기준)

신영퇴직연금배당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은 자산의 40% 이내에서 배당수익률이 높은 고배당주에 투자하고 나머지 자산은 안정적인 채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은퇴후 목돈 마련을 목표로 장기적으로 자산가치의 증식을 추구하는 퇴직연금 전용 채권혼합형 펀드입니다.

펀드 수익률 현황

펀드는 최근 3개월 +4.60%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비교지수는 +6.39%로 비교지수대비 1.79%p 하회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비교지수 : KOSPI 36.0% + KIS종합채권지수 54.0% + CALL 10.0%)

최근 3개월

+ 4.60%

비교지수 : +6.39%
비교지수대비: -1.79%p

최근 1년

- 0.49%

비교지수 : +4.11%
비교지수대비: -4.60%p

최근 3년

+ 0.83%

비교지수 : +3.66%
비교지수대비: -2.83%p

최근 5년

+ 12.48%

비교지수 : +13.6%
비교지수대비: -1.12%p

펀드 포트폴리오 현황

투자대상 업종 상위 5 [주식기준] (%)

전기전자	34.72
금융업	11.04
코스닥	8.85
화학	7.25
통신업	5.21

투자대상 종목 상위 5 (%)

국고02375-2712(17-7)	8.04
삼성전자	6.30
국고01125-3909(19-6)	5.01
국고02625-2806(18-4)	3.28
국고02375-2812(18-10)	3.23

신영퇴직연금배당40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자산운용보고서

운용기간 : 2020.04.24. ~ 2020.07.23.



CONTENTS

신영자산운용이 투자자에게 드리는 자산운용보고서



》 자산운용보고서 공지사항

- 동펀드는 모자형 구조의 펀드로서 이 자산운용보고서에서 자산구성현황, 보유종목, 보수 및 비용 등의 정보는 고객님의 가입한 신영퇴직연금배당4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이 투자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고객님이 가입하신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현행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신영퇴직연금배당4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의 자산운용회사인 신영자산운용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국민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국민은행, 미래에셋대우 외 27개사를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각종 보고서 확인:
 - 신영자산운용 홈페이지(<http://www.syfund.co.kr>) → 펀드정보 → 펀드명 검색 → 자산운용보고서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 (<http://dis.kofia.or.kr>) → 펀드공시 → 보고서 선택 → 자산운용보고서 선택 → 펀드명 검색 → 조회
- 이 자산운용보고서는 펀드 전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계좌별 수익률 정보 확인 및 고객정보 변경 처리는 펀드를 가입하신 판매회사의 지점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자산운용보고서)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메일로 자산운용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보고서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객님의게 발송해드리고 있으며, 이메일 수령 신청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자산운용 보고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전환 신청은 가입하신 판매회사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펀드 현황

- 운용 경과
 - 투자 환경 및 운용 계획
- 1. 펀드의 개요**
 - 기본 정보
 - 재산 현황
 - 펀드 구성
 - 2. 수익률 현황**
 - 기간(누적) 수익률
 - 손익 현황
 - 3. 자산 현황**
 - 자산구성 현황
 - 자산별 구성비중
 - 투자대상 업종 상위 10
 - 주식업종별 투자비중
 - 각 자산별 보유 내역
 - 4. 투자운용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 총보수·비용 비율
 - 6. 투자자산 매매내역**
 - 매매주식 규모 및 회전율
 - 최근 3분기 주식 매매회전율 추이
- < 참고 - 펀드용어해설 >

운용 경과

신영퇴직연금배당4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4.60%로 양(+)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나 비교지수 대비해서는 1.79%p 하회하였습니다.(비교지수(벤치마크): KOSPI 36%+ KIS종합채권지수 54%+ Call 10%)

[주식 부문]

지난 1년 국내 주식시장은 미-중 간 무역분쟁 심화로 위안화 환율 급등, 일본 수출 규제조치로 IT 산업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며 급락했던 증시가 반등하는 과정에서의 쏠림 심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9년 8월부터 20년 연초까지의 반등 과정에서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의약품 등 경기 영향이 크지 않는 구조적 성장산업의 아웃퍼폼이 눈에 띄었고, 이는 20년 연초 코로나19 확산 시기를 지나며 한층 심화된 반면, 경기민감 업종은 전염병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하며 성장 산업과 경기 민감 업종 간 성과 차별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지난 3개월(2020.04.24. ~ 2020.07.23.) 간 의약품, 서비스업(소프트웨어), 운수장비, 음식료, 증권 업종이 시장 대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유틸리티, 통신, 유통, 섬유 의복 등 전통적인 내수 업종은 상당히 부진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기간 중 동 펀드는 낮은 비중으로 보유한 의약품, 소프트웨어 업종의 높은 추가 상승으로 비교지수 대비 부진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동 펀드에서는 그간 자동차 업종에 대해 보수적으로 대응하였으나 2분기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으로 이익의 하방을 보여준 점과 더불어 친환경차 시장 내 경쟁력 개선으로 저평가 가해소될 것으로 기대하여 의미 있는 비중 확대를 진행하였습니다.

[채권 부문]

5월 초 미국 금리는 마이너스 기준금리 가능성에 하락했으나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미 연준의 부정적 반응에 횡보하였고, 국내 금리는 5월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으로 소비심리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코로나 재확산 우려는 지속되며 장단기 모두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월 중반 연준 파월 의장의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 발언에 하락했던 미국 금리는 코로나 백신 개발 관련 보도에 다시 상승하며 등락을 보였습니다. 이후 국내는 3차 추경 규모 확대 가능성에 적자국채 발행 증가가 예상되며 중앙기물을 중심으로 금리 상승 압력이 있었으나, 국내 코로나 재확산이 지속되었던 점과 5월 말 금통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며 장단기 금리 모두 월초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운용 경과

6월 초 미국 금리는 미 고용지표, 서비스업 등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고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 부양책 영향 등에 경제 회복 기대감으로 상당 폭 반등하였습니다. 국내 금리 또한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 결정 이후 기준금리의 실효 하한에 대한 부담과 추경으로 인한 채권 공급 물량 확대 등으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미국 금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상승을 되돌렸고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간 4만 명을 넘어서며 장기물 중심 하락하였습니다. 국내 금리 또한 글로벌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다시 하락하며 좁은 범위 속 등락을 보이며 하락하였습니다.

6월 말 미국 금리는 정책 기대감과 고용지표 호조에 소폭 상승하였고 국내 금리는 한국은행의 국고채 단순 매입 시행 발표에도 국회 상임위에서 추경 규모가 3.1조원 증액되며 수급 부담 우려에 상승하였습니다.

7월 초 미국 서비스업 PMI 서프라이즈와 중국 증시 강세에도 미국 금리는 백악관에서 제시한 추가 부양책 규모가 기존 2조 달러에서 1조 달러로 축소된 영향과 코로나 재확산에 상승을 되돌리며 하락하였습니다. 국내 시장은 미국금리 하락에 단기적 강세를 보였으나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홍남기 부총리의 “금리 결정, 부동산과 연계해 생각할 수 있어”라는 발언에 금리는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3.3%로 부진하게 나오면서 금리는 추가 하락하였고 이에 더해 익월 국고채 수급 부담 완화 기대감에 장단기 스프레드는 축소되었습니다.

7월 중순 미국은 코로나 재확산이 이어지고 추가 부양책에 대한 의회내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견 차이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장기금리는 하락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동 펀드는 경제지표 발표와 코로나 재확산 추세를 모니터링하며 듀레이션 및 커브 전략의 실행 기회를 모색해나갔습니다. 5월 기존의 우량 크레딧물이 좋은 성과를 보이면서 양호한 펀드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6월 펀드 듀레이션을 중립 수준으로 유지하며 금리 메리트가 높고 롤링효과가 큰 2-3년 구간 은행채, 공사채를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이후 7월 금리 하락으로 소폭 확대되었던 듀레이션을 중립 수준으로 축소하면서 이익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크레딧 스프레드가 축소된 것을 감안하여 우량 은행채, 공사채 비중을 소폭 축소하였습니다.



[주식 부문]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유동성은 확대된 가운데 향후 경기 회복의 경로, 회복의 강도, 산업 구조의 변화 방향과 속도, 정치적 이슈의 출현 여부 등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극도로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금리 수준과 점진적인 경제활동의 재개, 기업 이익 전망의 안정화는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를 높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대선정국 돌입과 코로나 재확산, 유로존의 재정정책 기대감에 달러 약세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에 따라 기초체력이 좋은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 원자재 가격의 상승 여력은 여전하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그동안 주가가 부진했던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업종, 종목별로 차별적인 대응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익의 하방이 확인되고, 내년까지의 성장 가시성이 높은 업종, 종목에 대해서는 순환매 대상으로의 편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올해 실적이 바닥이기는 하지만 수요 전망이 불확실한 업종, 종목에 대해서는 보수적 시각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확장성' 유무에 따른 업종, 종목별 차별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넘치는 유동성이 흘러갈 주요 경로는 경기 부양을 위해 지출되는 각국 정부 예산의 흐름, 한정된 소득 내 소비자들의 생활/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가계지출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지출의 방향은 디지털(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신재생(녹색산업 생태계, 친환경에너지 등) 등이 있으며, 소비자의 지출은 온라인/모바일화, 가정 내 활동(여가, 식사 등) 증가에 따른 관련 수요 확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중장기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종목 선택 시에는 상기한 사항들과의 연관도에 주목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는 확대는 경기 회복의 속도를 지연 시킨 것이 아닌 경기의 경로를 완전히 바꾸었다고 보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경기 둔화, 유동성 확장 정책으로 저금리 환경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에 따라 배당주의 매력은 여전하다는 생각이며, 기업 이익 감소에 대한 우려만 덜어진다면 KOSPI를 크게 상회하는 배당수익률을 보이는 배당주에 대해서는 다시 수요가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향후에도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변화될 각국의 정책기조, 기업 경영 환경의 변화, 일반 시민들의 생활상과 관련한 산업, 종목들의 발굴과 편입으로 펀드의 중장기 성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채권 부문]

7월 발표된 미국 지표는 대체로 반등세를 보였지만,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7월 말 다시 상승하고 6월 개인소득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는 등 기존 재정 부양책 효과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 재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립하고 있는 추가 재정 부양책 합의 규모와 그 내용에 따라 하반기 경기 반등의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는 6월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7.2% 증가하며 자동차와 반도체 중심 반등했지만, 한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비 -3.3%를 기록하고 연간 성장률이 한국은행 전망치 -0.2%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해외 수요 위축으로 수출 반등은 지연될 전망입니다.

수급의 경우 8월 국고채 발행 계획이 전월보다 3천억 감소하고 장기물 발행 비중이 소폭 줄어들며 채권 수급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연준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전까지 현재의 스탠스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은행은 7월 금통위에서 부동산 문제와는 선을 그으며 완화적 스탠스를 유지한 이후, 일부 지표 반등이 나오더라도 8월 금통위에서도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이 미국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어 단기간 내에 경제활동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익월에도 코로나 충격을 완화할 추가 부양책의 규모와 내용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펀드는 펀드 듀레이션을 중립 수준으로 유지하며 변동성을 방어하는 가운데 코로나 진행 방향과 하반기 경기 반등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며 추가 전략 실행의 기회를 찾아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의 완화적 스탠스가 지속되는 유동성 장세에서 증시 강세, 달러 약세 등 위험 선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상승 신호를 모니터링하며 금리 변동성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확대되었던 크레딧 스프레드가 우량등급 중심으로 빠르게 축소되고 있어 은행채, 공사채 비중을 서서히 축소할 계획입니다.

1. 펀드의 개요

기본 정보

펀드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투자위험등급	
신영퇴직연금배당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54209	5등급 (낮은위험)	
신영퇴직연금배당주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54007		
신영퇴직연금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53637		
신영퇴직연금배당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E형	BT898		
신영퇴직연금배당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형	A8997		
신영퇴직연금배당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F형	A8998		
펀드종류	혼합채권형,가방형,추가형,종류형,모자형	최초설정일	2006.01.24
운용기간	2020.04.24. ~ 2020.07.23.	존속기간	추가형으로 별도의 존속기간이 없음
자산운용회사	신영자산운용	펀드재산보관회사	국민은행
판매회사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외 28개사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적용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품의 특징	동펀드는 자산의 40% 이내에서 배당수익률이 높은 고배당주에 투자하고 나머지 자산은 안정적인 채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은퇴후 목돈 마련을 목표로 장기적으로 자산가치의 증식을 추구하는 퇴직연금 전용 채권혼합형 펀드입니다.		

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백만좌, %, %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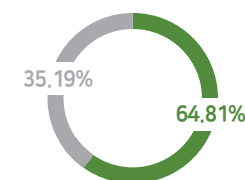
펀드 명칭	항목	전기말 (2020.04.23.)	당기말 (2020.07.23.)	증감률
신영퇴직연금배당40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자산 총액 (A)	506,200	500,311	-1.16
	부채 총액 (B)	1,235	455	-63.15
	순자산총액 (C=A-B)	504,966	499,856	-1.01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509,267	481,905	-5.37
	기준가격 ^{주)} (E=C/D×1000)	991.55	1,037.25	4.61
종류(Class)별 현황				
신영퇴직연금배당40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C-E형	기준가격	941.18	983.26	4.47
신영퇴직연금배당40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C형	기준가격	989.72	1,033.31	4.40
신영퇴직연금배당40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F형	기준가격	990.87	1,035.79	4.53

주)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주) 상기 재산현황에서 기준가격의 증감률은 펀드의 수정기준가를 통해 계산된 수치가 표기됩니다.

펀드구성

자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모펀드비중



- 신영퇴직연금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 신영퇴직연금배당주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자펀드가 투자 중인 모펀드 비중 및 구조를 보여줍니다.

※ 상기 그래프 및 구조도는 모자형 구조의 펀드에서 현금성 자산 등을 제외한 모펀드들의 투자비중을 100%로 가정하여, 각 모펀드에 투자하는 비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상기의 모펀드 투자 비중은 순자산 기준 투자 비중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수익률 현황

기간(누적) 수익률

(단위: %, %p)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신영퇴직연금배당40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4.60	-1.41	0.81	-0.49	2.27	0.83	12.48
(비교지수 대비 성과)	-1.79	-3.03	-3.82	-4.60	-3.28	-2.83	-1.12
종류(Class)별 현황							
신영퇴직연금배당40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C-E형	4.47	-1.67	0.41	-1.02	1.18	-	-
(비교지수 대비 성과)	-1.92	-3.29	-4.22	-5.13	-4.37	-	-
신영퇴직연금배당40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C형	4.40	-1.80	0.21	-1.28	0.64	-1.56	8.07
(비교지수 대비 성과)	-1.99	-3.42	-4.42	-5.39	-4.91	-5.22	-5.53
신영퇴직연금배당40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F형	4.53	-1.55	0.59	-0.78	1.66	-0.06	10.82
(비교지수 대비 성과)	-1.86	-3.17	-4.04	-4.89	-3.89	-3.72	-2.78
비교지수주)	6.39	1.62	4.63	4.11	5.55	3.66	13.60

주) 비교지수 : KOSPI 36% + KIS종합채권지수 54% + Call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익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예금	기타	손익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전기	-37,588	4,434	64	-111	0	0	0	0	-113	-16	-33,329
당기	17,566	5,420	58	-40	0	0	0	0	-167	-15	22,821

※ 전기: 2020.01.24.~2020.04.23. / 당기: 2020.04.24.~2020.07.23.

3. 자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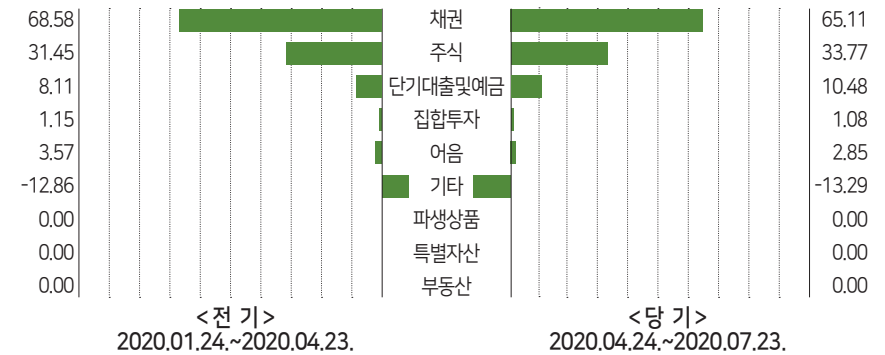
자산구성 현황

(단위: 백만원, %)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168,961	325,770	14,244	5,403	0	0	0	0	0	52,427	-66,496	500,311
(0.00)	(33.77)	(65.11)	(2.85)	(1.08)	(0.00)	(0.00)	(0.00)	(0.00)	(0.00)	(10.48)	(-13.29)	(100.00)
합계	168,961	325,770	14,244	5,403	0	0	0	0	0	52,427	-66,496	500,311

* () : 구성 비중

자산별 구성비중



※ 위의 결과는 해당 펀드의 실제 자산보유 내역을 투자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모펀드의 자산구성 내역을 해당 펀드가 각 모펀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안분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익증권 기준으로 작성한 결과와 비교하여 상이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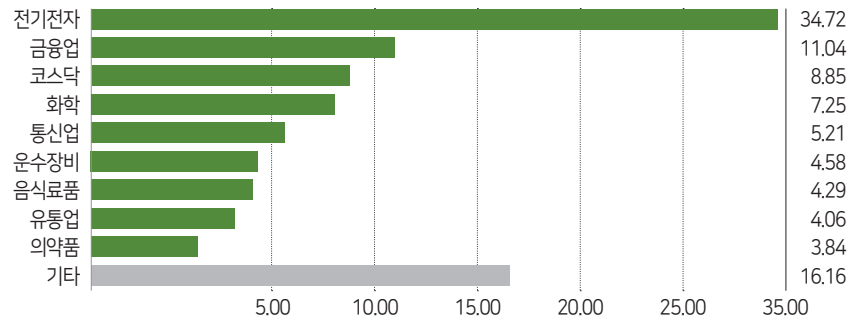
투자대상 업종 상위 10

(단위: %) ▾

순위	업종명	비중	순위	업종명	비중
1	전기전자	34.72	6	운수장비	4.58
2	금융업	11.04	7	음식료품	4.29
3	코스닥	8.85	8	유통업	4.06
4	화학	7.25	9	의약품	3.84
5	통신업	5.21	10	기타	16.16

주식업종별 투자비중

▾



※ 위 업종구분은 한국거래소의 업종구분을 따릅니다.

- 각 자산별 보유 내역(모펀드 기준) -

※ 투자대상 상위 10개 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를 초과하는 종목을 기재합니다.

주식

(단위: 주, 백만원, %) ▾

종목명	보유수량	평가금액	비중	비고	종목명	보유수량	평가금액	비중	비고
삼성전자	583,073	31,544	6.30		삼성전자우	193,998	9,128	1.82	

채권

(단위: 백만원, %) ▾

종목명	액면가액	평가액	발행국가	통화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비중
국고02375-2712(17-7)	37,047	40,205	대한민국	KRW	2017.12.10.	2027.12.10.		N/A	8.04
국고01125-3909(19-6)	26,674	25,041	대한민국	KRW	2019.09.10.	2039.09.10.		N/A	5.01
국고02625-2806(18-4)	14,819	16,407	대한민국	KRW	2018.06.10.	2028.06.10.		N/A	3.28
국고02375-2812(18-10)	14,819	16,148	대한민국	KRW	2018.12.10.	2028.12.10.		N/A	3.23
국고02125-2706(17-3)	14,819	15,778	대한민국	KRW	2017.06.10.	2027.06.10.		N/A	3.15
한국전력852	7,409	7,995	대한민국	KRW	2013.07.05.	2023.07.05.		AAA	1.59
국고02250-2512(15-8)	7,409	7,859	대한민국	KRW	2015.12.10.	2025.12.10.		N/A	1.57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주, 백만원, %)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REPO매수	키움투자자산운용	2020.7.23.	14,819	0.37		대한민국	KRW

※ 보다 상세한 투자대상자산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펀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서 조회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는 본 자산운용보고서와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① 4. 투자운용인력 현황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백만원) ✓

성명	직위	출생연도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 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허남권	책임운용역	1963	67	5,579,298	1	4,943	2109000131
심창훈	책임운용역	1975	39	1,344,218	0	0	2110000545
최민아	부책임운용역	1988	12	2,953,285	1	18,082	2112000105
김화진	부책임운용역	1982	14	3,004,380	0	0	2109001447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 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

구분	기간	투자운용인력
책임운용역	2006.10.31. ~ 현재	허남권
책임운용역	2018.02.27. ~ 현재	심창훈
책임운용역	2018.02.27. ~ 2018.09.06.	박인희
부책임운용역	2014.06.03. ~ 현재	김화진
부책임운용역	2019.05.03. ~ 현재	최민아
부책임운용역	2016.01.11. ~ 2018.02.26.	심창훈
부책임운용역	2011.04.29. ~ 2018.02.26.	박인희

※ 최근 3년간의 투자운용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② 5. 비용 현황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전기 2020.01.24.~2020.04.23.		당기 2020.04.24.~2020.07.23.	
	금액	비율 ^{주1)}	금액	비율 ^{주1)}
자산운용사	0	0.00	0	0.00
판매회사	0	0.00	0	0.00
신영퇴직연금 배당40증권 자투자신탁 (채권혼합)	0	0.00	0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0	0.00	0	0.00
기타비용 ^{주2)}	6	0.00	6	0.00
매매·중개 수수료	60	0.01	89	0.02
단순매매·중개수수료	18	0.00	25	0.0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42	0.01	64	0.02
합계	78	0.01	114	0.02
증권거래세	89	0.02	119	0.02
자산운용사	8	0.06	8	0.06
판매회사	10	0.07	10	0.07
신영퇴직연금 배당40증권 자투자신탁 (채권혼합) C-E형	1	0.00	1	0.00
펀드재산보관회사 (신탁업자)	1	0.00	1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1	0.00	1	0.00
보수합계	20	0.13	19	0.13
기타비용 ^{주2)}	0	0.00	0	0.00
매매·중개 수수료	2	0.01	3	0.02
단순매매·중개수수료	0	0.00	1	0.0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2	0.01	3	0.02
합계	2	0.02	3	0.02
증권거래세	291	0.06	280	0.06
자산운용사	677	0.13	652	0.13
판매회사	25	0.00	24	0.00
신영퇴직연금 배당40증권 자투자신탁 (채권혼합) C형	19	0.00	18	0.00
펀드재산보관회사 (신탁업자)	19	0.00	18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1,013	0.20	974	0.20
보수합계	9	0.00	9	0.00
기타비용 ^{주2)}	58	0.01	86	0.02
매매·중개 수수료	17	0.00	24	0.00
단순매매·중개수수료	75	0.01	110	0.02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75	0.01	110	0.02
합계	85	0.02	115	0.02
증권거래세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구분	전기		당기		
	2020.01.24.~2020.04.23.		2020.04.24.~2020.07.23.		
	금액	비율 ^{주1)}	금액	비율 ^{주1)}	
자산운용사	4	0.06	1	0.06	
판매회사	0	0.01	0	0.01	
신영퇴직연금 배당40증권자 투자신탁 (채권혼합) F형	펀드재산보관회사 (신탁업자)	0	0.00	0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5	0.07	1	0.07
	기타비용 ^{주2)}	0	0.00	0	0.00
	매매·중개 수수료	1	0.01	0	0.02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	0	0.00
	합계	1	0.02	0	0.02
	증권거래세	1	0.02	0	0.02

주1)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주2)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수수료는 제외한 것입니다.

※ 성과보수내역 : 해당사항 없음 / ※ 발행분담금내역 : 해당사항 없음

총보수·비용비율

(단위: 연환산, %) ▼

구분	총보수·비용비율 ^{주1)}	매매·중개수수료비율 ^{주2)}	합계(A+B)
신영퇴직연금배당40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전기 0.0007	0.0332	0.0339
	당기 0.0007	0.0511	0.0518
종류(Class)별 현황			
신영퇴직연금배당40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C-E형	전기 0.5364	0.0332	0.5696
	당기 0.5365	0.0514	0.5879
신영퇴직연금배당40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C형	전기 0.8045	0.0333	0.8378
	당기 0.8046	0.0514	0.8560
신영퇴직연금배당40증권자 투자신탁(채권혼합)F형	전기 0.2981	0.0296	0.3277
	당기 0.2981	0.0378	0.3359

주1)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주2)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 모자형의 경우 모펀드에서 발생한 비용을 자펀드가 차지하는 비율대로 안분하여 합산한 수치입니다.

※ 전기: 2020.01.24.~2020.04.23. / 당기: 2020.04.24.~2020.07.23.

6. 투자자산 매매내역

매매주식 규모 및 회전율

(단위: 백만원, %) ✓

매수		매도		매매회전율(주)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해당기간	연환산
2,505,931	111,123	5,472,130	129,219	27.29	109.46

주)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금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나타냅니다.

최근 3분기 주식 매매회전율 추이

(단위: %) ✓

2019.10.24. ~ 2020.01.23.	2020.01.24. ~ 2020.04.23.	2020.04.24. ~ 2020.07.23.
13.73	21.14	27.29

펀드용어해설

용어	내용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펀드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펀드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펀드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펀드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종류형펀드	통상 멀티클래스 펀드로 불립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 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방법은 동일합니다.
모자형펀드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주식형펀드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신탁보수	펀드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회사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 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간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